

# 광역교통망 철도 중심 재편... 2030년까지 2배로 확충

## 대도시권 철도망 확충 방안 발표

지하철 3호선·9호선 구간 연장 대화~운정은 기획 용역 진행중 저비용·고효율 교통수단 도입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이 철도 중심으로 재편된다.

정부가 신도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발과 도착시간이 정해진 시간에 이뤄지는 '정시성'이 보장되고 친환경적인 광역철도망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꺼내들었다.

지역 민원이 제기됐던 9호선 연장과 인천2호선 신안산선 연결 방안 등을 본격 추진한다. 서부권을 관통하는 또다른 광역급행철도(GTX)를 신설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 ◆3호선 연장·인천2호선 신안산선에 연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31일 발표한 '광역교통 2030' 비전의 핵심은 광역철도 확충이다. 이는 3기 신도시 발표를 계기로 열악한 교통에 대한 불만을 표출해 온 1·2기 신도시의 반발을 달래기 위한 복안으로 풀이된다.

먼저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구간, 9호선 강일~미사 구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대화~운정 연장은 현재 사업재기획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강일~미사 구간 연장은 하남축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다.

인천2호선을 신안산선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인천2호선을 인천대공원역에서 신안산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다. 대평위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김포한강선은 검단으로 연결된다. 현재 김포한강선 방화~양곡 구간 사업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대도시권 광역교통 비전 2030 선포식' 행사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등으로, 이를 통해 김포한강선이 검단 지역으로 이어지게 된다.

고양선을 일산 식사지구까지 추가 연장하거나 서울 6·9호선을 동북권으로 연장하는 방안은 추후 검토 과제로 정했다. 고양선 새철역~고양시청 구간은 광역교통개선 분담금으로 추진한다.

7호선 옥정~포천 구간 연장도 사업 계획 적정성을 검토 중이다. 위례~과천선 북정~경마공원 구간 연장 사업과 3호선 오금~덕풍 구간 연장 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 사업은 예타가 조속히 통과되도록 한다.

◆"수도권 서쪽에 GTX 노선 하나 더" 대평위는 수도권 주요 거점을 GTX로 연결해 과리와 린دن 등 세계적 도시 수준의 광역교통망을 완성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우선 급행철도의 수혜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서부권에 신규 노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미 착공한 GTX-A(파주 운정~화성 동탄)와 신안산선(안산·시흥~여의도)은 각각 2023년, 2024년 준공할 수 있

도록 공기단축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예타를 통과한 GTX-B(인천 송도~남양주 마석)와 GTX-C(양주 덕정~수원)는 각각 2021년 말, 2022년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절차를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 예타 통과 후 최대한 서두르면 3년 만에 착공할 수 있다"며 "이에 맞춰 GTX B와 C의 착공 목표를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4호선(과천선)에서도 시설 개량을 통해 급행열차를 운행할 계획이다. 현재 1호선(경부선)에는 급행열차를 넣기 위한 공사가 진행 중으로, 내년 중에는 급행이 투입될 예정이다.

인덕원~동탄 등 신설되는 노선에 급행 체계가 가능하도록 건설함으로써 급행 운행비율을 현재 16%에서 2030년 35%로 2배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 ◆'트램-트레인' 도입

신교통수단도 눈길을 끈다. 국토부는 독일 등지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트램-트레인'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트램-트레인은 도시 내부에선 트램으로서 시속 30~50km로 운행하다가 외곽지역에서는 일반 철도로 시속 100km

## '대도시권 광역교통 비전 2030' 주요 내용

- 2030년까지 주요 광역도시권**
  - 통행시간 30분대로 단축
  - 통행비용 최대 30% 절감
  - 환승시간 30% 감소
- 1 세계적 수준의 급행 광역교통망 구축**
  - 주요 거점 30분대 연결 광역철도망 구축 (광역철도 730 → 1,577km)
  - 도시철도 710 → 1,238km
  - 도로의 간선기능 회복
  - 새로운 교통수단 트램 도입
- 2 버스·환승 편의증진 및 공공성 강화**
  - 광역버스 대폭 확대
  - 고속 BTX 도입
  - 주요 거점 환승센터 구축
  - 다양한 요금제 도입
  -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 3 광역교통 운영관리 제도 혁신**
  - 선제적 광역교통대책으로 불편 최소화
  - 광역교통시설 투자체계 개편
  - 광역교통정책의 이행력 강화
- 4 혼잡·공해 걱정 없는 미래교통 구현**
  - 미움껏 승설수 있는 대중교통중심도시 실현
  - 최종 목적지까지 끊김없는 서비스 제공

자료/ 국토교통부 연합뉴스

의 빠른 속도로 이동해 접근성과 속도 경쟁력을 확보하는 새로운 유형의 대중교통이다.

기존 철로를 활용할 수 있어 저비용 고효율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독일 카펠시 등 선진 유럽에서는 이미 도입됐다. 앞서 2017년 전북도가 익산역을 중심으로 한 트램-트레인 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연합뉴스

# 주요 간선도로에 대심도 지하도로 신설... 복층화로 교통개선 '시동'

## 지하는 자동차, 지상은 대중교통 M버스 운행지역 지방까지 확대 전기 2층버스로 친환경성도 강화

수도권 주요 간선도로에 대심도 지하도로가 신설된다. M버스 등 수도권 광역급행버스는 서울 도심까지 들어오기 보다는 적절한 환승지점을 정해 승객을 내리고 회차하게 하는 전략을 추진한

### ◆대심도 지하도로 추진

이번 광역교통 도로대책의 핵심은 주요 간선도로의 상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심도(大深度; 지표 기준 40m 이상 깊이)의 공간) 지하도로 신설 방안이다.

수도권 동서횡단축인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비롯해 자유로, 부산·울산 권의 사상~해운대 구간에 대심도 지하

도로 신설이 검토된다.

동서횡단축의 경우 강변북로는 수변 공간이 넓지 않아 올림픽대로에 지하도로가 신설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대심도 지하도로가 설치되면 지하부는 자동차 주행도로로, 지상부는 간선 급행버스(BRT)나 중앙버스차로 등 대중교통차로로 활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은 연구 단계인 만큼 공사로 인한 정체를 피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1순환고속도로 교통을 개선하기 위해 서창~김포, 판교~퇴계원 등 2곳의 상습정체구간에도 지하도로를 뚫어 복층화한다.

제2순환고속도로의 경우 공사를 서둘러 2026년까지 전 구간 개통할 예정이다.

### ◆고속 BTX도 도입

M버스 운행지역은 수도권에서 지방 대도시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류장에서 대기할 필요 없이 M버

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M버스 예약제를 전 노선으로 확대한다.

남양주 왕숙과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에 전용차로와 우선신호 체계를 적용하는 등 지하철 시스템을 갖춘 S-BRT를 구축한다.

S-BRT는 교차로 무정차 운행이 가능하고 지하철처럼 사전에 요금을 징수하는 정류장 등을 갖춘 수 있다.

세종시에서 BRT 노선을 S-BRT로 전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대평위는 속도 경쟁력과 대용량 수송능력을 갖춘 고속 BTX(Bus Transit eXpress)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기 2층버스가 투입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수송력도 강화된다.

경기도나 인천에서 서울의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까지 고속으로 이동하고서 간선도로와 접한 지하철역 인근 지하 환승센터에서 승객을 내려주고 회차함으로써 서울 도심 진입으로 인한 시간낭비를 피한다.

이를 위해 강변북로 등 간선도로 지하에 광역버스 전용차로를 만들어 환승센터까지 연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하면 기존 광역버스보다 이동 속도가 30% 이상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 ◆빠르고 편리한 환승 시스템 구축

환승센터는 장소별로 도심형, 회차형, 철도연계형 등으로 구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도심형 환승센터는 지하철역 삼성과 잠실, 강남, 사당, 여의도, 서울, 청량리 등에 설치될 예정이다.

회차형은 지하철역 김포공항, 디지털미디어시티, 선바위, 청계산입구, 강일에 설치되고, 철도연계형의 경우 운정, 킨텍스, 대곡, 부천종합운동장, 별내 등에 지어진다.

이와 함께 신도시 등 교통소의 지역에 안정적인 광역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에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범 도입한다.

/석대성 기자 bigstar@ 연합뉴스



/유도이미지